

천정부지 치킨값... 편의점업계 '가성비' 경쟁

한마리 3만원 3년새 19.65% 상승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인상 요구"
GS25, 연말까지 7900원 상품 판매
세븐일레븐, '즉석치킨' 30% 할인

"치킨 두마리 시키는데 6만원 가까이 드네요. 서민 먹거리인 치킨이 이제는 큰맘 먹고 사먹어야하는 음식이 돼 버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오붓하게 치킨을 먹으려던 박훈규(24)씨는 치킨 물가에 깜짝 놀랐다.

박씨는 "친척들이 놀러와 알바비로 가족들한테 치킨을 쏠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가격을 보니 시킬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예전에 1만대 초반이면 한마리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연일 이어진 고물가 속에 치킨가격이 오르는 '치킨플레이션(치킨+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오는 31일까지 인기 즉석치킨 5종을 최대 30% 할인해 1만원대 가성비 치킨을 선보인다. 세븐일레븐 제공

프랜차이즈 치킨 한마리 가격이 3만원대를 육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선 소비자를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치킨' 판매 경쟁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물가는 119.97(2020년=100)로 전년 동월대비 4.57% 상승했다. 2년 전보다 14.17%, 3년 전보다 19.65% 올랐다. 광주지역 치킨물가 역시 지난달 118.05(2020년=100)로 지난 2020년 동월대비 17.83%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중 교촌치킨이 최대 3000원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주요 치킨 브랜드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리며 치킨 한마리에 2만원 중후반대가 형성되면서 배달료를 포함하면 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급격하게 오른 치킨값에 해당 치킨 브랜드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소비자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과 주문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고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치킨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이에 편의점 업계가 '가성비 치킨'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와 세븐일레븐 모두 1만원대 치킨을 선보인다. GS25는 대표 치킨 상품인 '쓴살치킨'을 리뉴얼 출시하며 가격을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낮췄다. 원재료는 가슴살 부위에서 100% 다리살로 변경했으며 콜라, 치킨무, 양념소스를 함께 구성해 상품성을 높였다. 연말 수요 상승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우리동네GS앱에서 배달, 픽업 주문 시 4000원 할인해 치킨 한마리를 7900원에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이달 말까지 인기 즉석치킨 5종을 최대 30% 할인해 1만원대 가성비 치킨을 선보인다. 인기 상품인 후라이드한마리720g를 30% 할인된 가격인 9000원에 판매한다. 또 닭봉으로만 구성된 한마리 치킨 '점포후라이드봉'도 30% 할인해 1만1900원에 선보인다. 칠리 양념이 특징인 '바팔로링봉'도 30% 저렴한 5600원에 선보인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지역 대형마트, 홈파티족 겨냥 '간편 모듬회' 선배

이마트, 참다랑어 등 참치회 판매
롯데마트, 생선회 최대 30% 할인

지역 대형마트들이 연말 홈파티족을 겨냥한 겨울철 간편 모듬회를 실속 있는 가격에 선보인다.

25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참다랑어 등 겨울 제철 홈파티용 생선회를 판매한다.

먼저 이마트는 오는 28일까지 수산매장에서 참다랑어 뱃살, 속살과 특수부위인 불살, 가마살, 배꼽살, 울대 중 한 부위가 함께 구성된 '참다랑어 특수부위 한판(230g 내외)'을 2만9800원에 선보인다.

참다랑어는 전 세계적으로 다랑어 어종 중 단 1.1% 비율로 어획되는 고급 횡감으로 일반적으로 '참치회'라고 하면 눈다랑어나 황다랑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또 참다랑어 불살, 가마살, 배꼽살, 울대는 참다랑어 전체에서 보통 3~8%만 차지하는 희귀 부위로 참치회 전문점에서도 맛보기가 어렵다.

불살은 참치의 볼 부분, 울대는 목젓살 부위로 소고기 육회처럼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배꼽살은 뱃살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씹는 맛과 감칠맛이 일품이며, 아가미 부위를 뜻하는 가마살은 기름기가 많아 진하고 깊은 향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참다랑어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새콤한 무침 양념이 함께 들어있는 무침회 4종도 함께 판매한다. 농어 무침회, 우럭 무침회, 세꼬시 무침회, 방어 무침회 4종을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한 1만5386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도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인기 생선회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겨울 제철 생선인 '은 가족 광어회(400g/국산)'와 생선회 스테디셀러 '타즈매니아 항공직송 연어(500g/호주산)'를 각각 30%, 20% 할인한 2만9960원, 2만2900원에 판매한다. 광어-연어회는 홈파티 수요를 겨냥해 선보이는 먹거리로 성인 2~3명이 먹어도 충분한 400g 이상 규격으로 구성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연말을 맞아 광어의 수요가 높아질 것을 대비해 지난 6월부터 수산팀 MD(상품기획자)가 제주 광어 양식장을 방문, 30톤가량의 광어를 사전에 계약해 판매가를 낮췄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이 부담 없이 프리미엄회를 맛볼 수 있도록 사전 기획과 대량 매입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홈플러스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1위

홈플러스는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에 9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Korean Net Promoter Score)' 평가에서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 등 2개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선정됐다.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은 고객이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경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향을 지수로 측정해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이번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만2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메가푸드마켓을 통해 다양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 가치를 높인 점을 인정받아 대형마트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형슈퍼마켓 부문 1위에 뽑혔다.

홈플러스는 가격, 상품, 물, 배송 등 4대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여왔다. '당당치킨'을 필두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가성비 좋은 마트'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함과 동시에 온라인 배송 역량을 강화해 편리한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또 지난 11월 기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년 차 점포들의 재단장 후 1년간 식품 매출은 최대 95%까지 뛰었다. 홈플러스 온라인 '1시간 즉시배송'도 2021년 2월 론칭 이후 2022년 매출이 지난해 대비 121% 뛴 데 이어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